

01 교회소식

젊은이들이 행복한 교회

주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충만하게 신앙 생활하며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운 국내외 만민 청년들의 이야기.

02 생명의 말씀\_ 신년기도제목 시리즈 2

열매

온 영의 흐름을 타고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

03 기획특집

궁구하는 삶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성결의 지름길, 자신을 깊이 있게 궁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04 간증

“믿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신앙의 참 맛을 깨달은 김은주 집사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이집트 아지즈 모르간 목사.

# 만민뉴스

제668호 2015년 1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겐 꿈이 있어요”

###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젊은이들



▲ 생후 63일째 되던 날, 거봉 포도 알이 폐로 들어가 심장이 두 번이나 멈춘 이정택 형제에게 자동응답서비스에 담긴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됐다.



▲ 대장 폐쇄에 셀리악 질환이 겹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일곱 살 소녀, 신시아는 한국에 있는 이재록 목사에게 자신의 사진 위에 기도받은 뒤 건강을 되찾아 어엿한 의학도가 됐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산 감소로 아동주일학교 아이들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입시 준비로, 대학부나 청년들은 취업준비로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금요철야예배나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서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후반기부터는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불건전한 문화를 끊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왔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위한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다. 이것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영적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생후 63일째 되던 날, 제 입가에다 즙을 적혀 주던 거봉 포도

알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이나 심장이 멈췄고 너무 어려서 수술이 불가능하니 의사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런데 자동응답서비스의 당회장님 권능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많은 성도에게 거봉 포도 간증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정택 형제는 올해 스무 살이 됐다. 퇴원 당시 담당의사는 발작증세 및 신체적 장애를 우려했지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올해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한다. 정택 형제는 하나님 은혜로 소생한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과학 분야의 교수가 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리고 싶다고 한다.

예능위원회 소속 예술선교단 단원인 구하영 자매(20)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한국무용을 통해 전 세계 영혼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어머니 강순화 권사가 기형아 출산의 위험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아 정상아로 태어났다는 하영 자매는 지난해 10월 대학 입시 실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연습 중에 넘어져 타

박상과 인대 손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김스를 한 채 당분간 팔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GCN 방송 프로그램 ‘희상’을 시청하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환자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를 받고 치료돼 실력 이상으로 시험을 잘 치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교회 젊은이들도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다.

식도 기형으로 연약하게 태어나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몸도 왜소했으며 지체도 부족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인도의 싘도쉬 형제(22)는 천나이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식도 기형이 치료돼 몸이 강건해졌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다. 교회에서 각종 봉사거리를 찾아 헌신하는 싘도쉬 형제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돼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힘이 돼 드리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곱 살 때 대장 폐쇄에 셀리악 질환(보리 등에 함유된 단백질인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소장 손상을 일으키는 유

전질환)이 겹쳐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의 신시아 자매(23)는 이재록 목사의 사진 기도로 치료받았다. 신시아 자매는 의사가 돼서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을 통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되리라는 꿈을 갖고 라호르의 엘리트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다.

페루만민교회 청년선교회 회장 아르놀 몰리나 형제(22)도 7년간의 게임중독에서 해방된 뒤 예배시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폐와 목 통증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다. 아르놀 형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씀 무장과 함께 포르투갈어 등 공부에도 열중하며 이재록 담임 목사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 권능으로 영육 간에 변화된 만민의 젊은이들은 주님께 받은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다.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무수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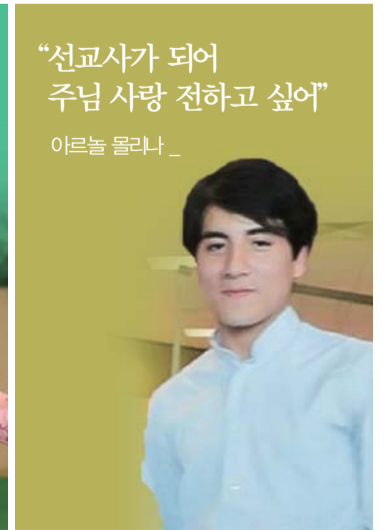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3)



“변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돕고자”  
싘도쉬 \_



“아름다운 무용으로 천국 소망 전하기를”  
구하영 \_



“선교사가 되어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  
아르놀 몰리나 \_





당회장 이재록 목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지난 한 해 동안의 뉴스를 돌아보면 기쁘고 흐뭇한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답답한 사건이 많습니다. 사고와 재난 등 나쁜 뉴스로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전 성도 신년기도제목 두 번째인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온 영’

우리는 어떤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살펴보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인간 경작을 이뤄오신 목적은 바로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할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할수록 사람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안타깝게 진리를 깨우쳐 주

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죄로 인해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졌고 세상의 유혹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권능의 제단을 세워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만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참 자녀를 무수히 얻기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자로 세우셨고, 33여 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였고, 기도와 금식과 철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교통함 속에 영계를 밝히 알려 주셨고, 성결되는 방법을 세세히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능을 나타내도 영의 열매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도 어느새 세상에 빠지는 영혼들이 생겼지요.

결국 저는 수년간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특별한 공의를 채우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도 용서를 받으며 더 나아가 구원만이 아니라 반석과 영의 열매들로 나올 수 있기를 간구했지요. 말로 다 못할 애정으로 보낸 세월 속에 하나 둘, 영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 마침내 영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2. 온전한 열매를 위한 온 영의 흐름

영의 열매는 깨끗한 그릇이지만 아직 온전한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깨끗한 그릇에 신령한 영의 내용물을 가득 채운 온 영의 열매이지요.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이제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온 영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전보다 더 애써야 합니다.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어찌하든 자기를 발견하려고 애쓴 것처럼 온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이 더 간절해져야 하지요. “이제 잠시만 쉬자.” 하거나 “이제 이만큼 이뤘으니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순간에 틈타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부족된 분야를 발견하면 그것을 덮어서도 안 되지요.

# 열매

온 영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모세, 사도 바울같이 온 영으로 들어가려면 더 철저히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말씀한 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꾀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015년을 맞아 온 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믿음의 반석과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변화의 흐름도 더 빨라집니다. 모두 그 흐름을 잘 타고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 3. 온 영의 흐름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위한 행함이 있어야

온 영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무장과 불 같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아울러 영적인 믿음과 천국 소망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당부할 것은 변화를 위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벗고 영과 온 영으로 들어가려면 진리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영과 온 영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컨대,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사모함으로 들으시는지?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게 간음, 험기, 욕심,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변개함과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입니다. ‘선과 사랑으로 온전히 행치 못한 것은 무엇이며 주님은 어찌 하셨을까?’ 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더 세세히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그 이후에는 발견한 죄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과 진리를 채우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25절에 “누구든지 도

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지요. 발견만 하고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묻은 오물을 씻지 않거나, 한쪽 눈썹이 빠졌던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지요.

어떤 분들은 은혜는 잘 받는데 행함이 부족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자기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며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옛 모습이지요. 마음에 안 맞으면 판단 정죄하거나 여전히 미움과 짜증이 있어 화평을 깎니다.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므로 “성결을 사모한다.” 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이룬 것도 아닌데 “아는 말씀이다.” 하면서 잡념과 졸음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얼마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뤄 왔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마음을 굳게 정하고 실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온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 하시는지요? 이 말은 겸손하고 욕심없는 말 같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선하지 않은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목적이 그저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영과 온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보상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경작의 목적을 성취하시어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신속히 온전한 영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성결의 지름길, 공구하는 삶

‘공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이다.  
주 안에서 공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실행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의 죄와 악의 모양을 발견해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과 느낌을 공구할 때 신속히 성결로 나올 수 있다.  
성결의 지름길, 공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 첫째, 하나님 말씀을 공구하고 명심하는 삶

마음 문을 열고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마음에 담겨져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 맞지 않거나 집중해 듣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 내 안에 진리가 부족하거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공구하고 명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서 짜증이나 미움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참는 데서 그치지만, 참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조차도 버리기 위해 열심히 노

력할 수 있고, 결국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구해 명심함으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성결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참고만 있다면, 아직 성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은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음 자체가 필요 없는 참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려고 해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마음 안에 비진리가 많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 불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집중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메모하는 등 명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공구하는 삶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눌러 참는 것은 온전한 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기준해서 자신을 공구해야 한다. ‘자신을 공구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스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느낌, 행동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만일 윗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를 행하는 아랫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며 나무랐는데,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여 자신의 말 속에 감정이 실려 있지는 않았는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공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고자 한다면 더 이상 선과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갈 수 없다. 또한 누가 나를 헐뜯는 것을 알았을 때 가서 따져 묻거나 싸우

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혹여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더욱이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떠올리고 있다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되짚어 생각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성결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혹여 사랑을 가지고 권면했는데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 셋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공구해 기도하는 삶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과거에 행한 죄를 행치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돼야 한다. 그 죄를 행하게 한 죄성과 악의 모양까지 찾아 근본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행한 모습 속에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깊이 찾아내야 한다. 만일 과거에 비진리를 행한 것에 대해 여전히 이유와 변명이 있다면 결코 변화될 수 없다. 내 편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툼이 일어난 죄성, 곧 자신의 마음 깊이 내재돼 있는 죄성들을 발견해 버려야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설령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한 것 같아도 끝까지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런데 단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내

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구하며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공구하면서 찾아내야 한다.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일으키는 죄의 속성을 찾기 위해 공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기도를 하는데도 혹여 변화가 더디다면 그것은 마음의 죄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깊이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한 마음 안의 죄성을 버릴 때까지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자 공구하는 삶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성결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01 JANUARY**  
2015.1.11 ~ 1.17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름다운 성전 ■ 재창조의 권능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민음을 책망하시니 3-7
- 온전한 심일조와 한물 5
- 요한계시록 강해 52 ■ 예언 3
- 천국 26-30 ■ 하나님을 만나려면
- 2차 영혼육 13-15 ■ 육체의 결여 4-8
- 3차 영혼육 1-2 ■ 성경적 결혼관 1-2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2 (이수진 목사)
- 말장이 (이미영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6 (이희선 목사)
- 생명수 18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6 / 탕자의 비유 3 (정구영 목사)
- 목자의 마음 (천우진 전도사)
- 잊지 않겠습니다 (도유리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1
- English 2 ■ 플로리스트 5
- 옛날 옛적에 12 ■ 창조와 과학 3
- 흥겨운 소리 9 ■ 만민 지킴이 9
- 모두 드려요 21 ■ 내 마음의 찬양 4
- 즐거운 요리 23 ■ 뷰티풀 라이프 14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3
- 에스토니아 연합대회 1
- 2014 만민회계수련회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저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입학한 후, 보통 음대생들처럼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트럼펫 레슨을 하며 지내던 중, 대학 선배인 김은정 집사님의 인도로 닛시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부터 닛시오케스트라 준단원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대학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인해 다녀본 여러 교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지요. 부끄럽게도 그때의 심정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힘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불현듯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눈물로 간구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돼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없었기에 당회장님의 저서 20권을 읽었습니다. 그제야 '이런 말씀이 있기에 성도님들이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깨우칠 수 있었지요.

2013년 5월부터는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30분이라도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천해 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도 조

## “이제야 신앙의 참 맛을 알았습니다”

김은주 집사 (41세, 2대대 16교구)



금씩 깨우쳤지요. 그러던 중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중순경, 제 오른쪽 팔뚝에 대상포진이 발병했으나 여선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다음날 수포가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의 기도로 콜린성 두드러기도 치료를 받았지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정서적 충격이나 갑자기 열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피부질환입니다. 가려움증이 매우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온기가 있으면 더욱 가려움증이 심해 배란다에 나가서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오른쪽 팔 한 군데에 있었는데, 점차 번져 세 군데가 됐고 목에도 생겼지요. 저는 교구장님의 말씀대로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작정 기도를 하며 치료받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014년 8월 4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제단에서 10년 동안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성도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은사 집회 때 단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정성껏 받았지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피부질환 증상이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콜린성 두드러기는 자율신경계통의 과민 반응으로 항상성 조절 실패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체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평생 따라다니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단번에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출산 후 생긴 요실금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강력한 심령으로 죽어 있던 제 영혼을 살려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지즈 모르간 목사 (이집트 오순절 교단 총회장)

친애하는 이재록 박사님께

이집트 오순절 교회에 대한 박사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만민중앙교회는 저희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도 박사님의 권능의 사역이 펼쳐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음의 지도자로 여긴 것과 같이 저희도 박사님을 신뢰합니다.

\*\*\*

2014년 12월에 열린 '길태식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무하메드 하베드 엘카데르는 모슬렘이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해 '십자가의 도' 말씀 중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들은 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의 도라고 불리는 이 길에 첫발을 내딛으며 주 예수님만

## “길태식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의 구세주임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강사 길태식 목사님이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많은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알리샤는 위염을, 매그디 목사는 당뇨병을, 조지 아야드는 디스크 골절을 치료받았지요. 미리암 아와드는 기도받을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을 느꼈고, 한안 예자트는 관절염을, 푸리아 아지즈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니오라 사미는 간염을, 아지자 하나는 심장병을 치료받았으며, 삼야 사메르는 신경염으로 인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잘 봅니다. 할렐루야!



▶ 길태식 목사(오른쪽 위)를 강사로 진행한 이집트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통해 갖가지 질병이 치료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개종의 역사도 따랐다.

### 해외에서 온 편지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에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영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637-0271,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6,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